

항공운송 동향분석

2011년 9월 우리나라 항공운송동향분석

한국항공진흥협회 기술정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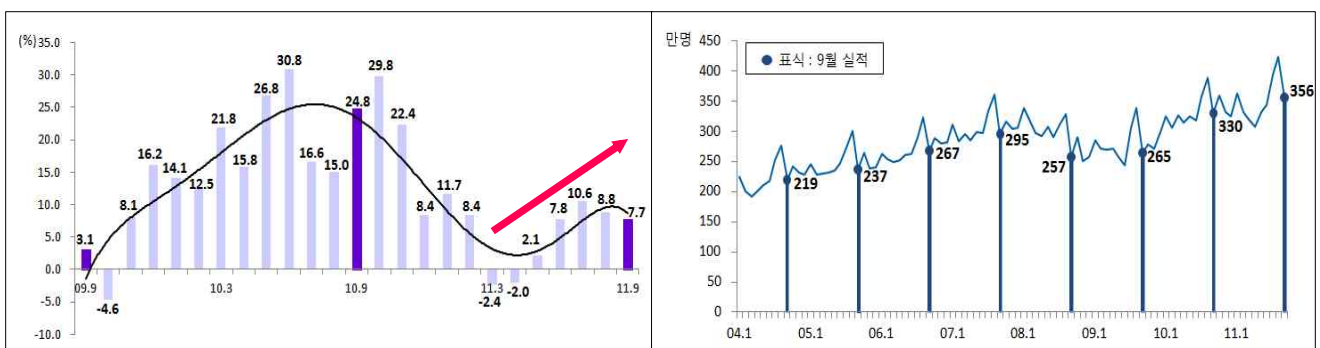


'11년 9월 우리나라 항공운송동향분석

- ❖ 추석연휴 등으로 인한 여행수요 증가로 인하여 국제 및 국내여객이 전년대비 각각 7.7%, 10.8% 증가하며 상승세 지속하였으나, 항공화물은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전년대비 1.2% 감소

국제여객

2011년 9월 국제여객은 추석연휴(9.10~9.13), 일본 실버위크 휴일(9.19, 9.22) 등으로 인한 해외여행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7.7% 성장한 3,556,243명을 달성하며 역대 9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였다. 전년의 경우 추석연휴가 최대 9일까지 볼 수 있었지만, 금년 추석은 주말을 끼면서 최소 4일 연휴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연휴기간 성장세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추석 전후 주말을 포함한 기준으로 금년 추석연휴기간 국제여객은 전년대비 0.7%만 증가하였으며, 장거리노선보다 단거리노선 위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림 1>은 국제여객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과 실적추이를 나타내어 준 그래프이다.



<그림 1> 국제여객 전년대비 증감률 및 실적추이 그래프



추석연휴 북적이는 인천공항의 모습(좌), 세계 공항 중 최초로 입점한 인천공항 루이비통매장 모습(우)

아래 <표 1>은 공항별 국제선 운항 및 국제여객실적을 정리한 표로, 공항 전체적으로 9월 운항과 여객이 전년대비 각각 8.0%, 7.7% 증가하며 공급력과 수요가 유사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공항은 대구공항으로, 전월에 이어 IAAF세계육상선수권대구대회 개최(8.27~9.4)효과, 추석연휴 등으로 인한 운항증대 영향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공항별 국제 여객실적

(단위 : 회, 명)

구 분	운 항			여 객		
	'10년 9월	'11년 9월	전년대비	'10년 9월	'11년 9월	전년대비
인 천	17,941	18,790	4.7%	2,699,482	2,819,953	4.5%
김 포	1,196	1,663	39.0%	258,327	338,750	31.1%
김 해	2,004	2,453	22.4%	242,270	293,486	21.1%
제 주	548	583	6.4%	70,635	78,270	10.8%
대 구	79	115	45.6%	9,085	13,226	45.6%
청 주	156	79	△49.4%	14,712	6,705	△54.4%
무 안	47	47	0.0%	6,159	5,120	△16.9%
양 양	16	15	△6.3%	764	733	△4.1%

그 뒤를 이어 김포와 김해공항이 20%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는데, 대구공항과 유사하게 두 공항모두 공급력 증대가 여객수요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포공항의 하네다노선은 전년대비 운항이 1.5배정도 증가하면서 여객수요가 21.9% 증가하였고, 지난 7월부터 운항이 시작된 베이징노선이 홍차오노선 이상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면서 중국노선의 여객수요는 전년대비 2.6배정도 (15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공항은 일본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필리핀, 태국, 베트남, 대만, 홍콩노선이 전년대비 평균 2배정도 증가(75.4%)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일본 대지진 발생이후 외래객 방문객이 지속 감소하였던 제주공항은 일본과 중국의 여객수요가 회복되면서 전년대비 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월까지 마이너스성장을 보이던 일본노선 수요가 9월 전년대비 2.7% 증가하면서 플러스성장으로 전환되었으며, 중국노선은 전년대비 42.6% 증가하며 전년대비 큰 폭의 성장세로 제주공항의 성장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는 지역별 국제여객실적을 나타내어 준 것으로, 일본과 미주를 제외한 전 지역이 증가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지역별 여객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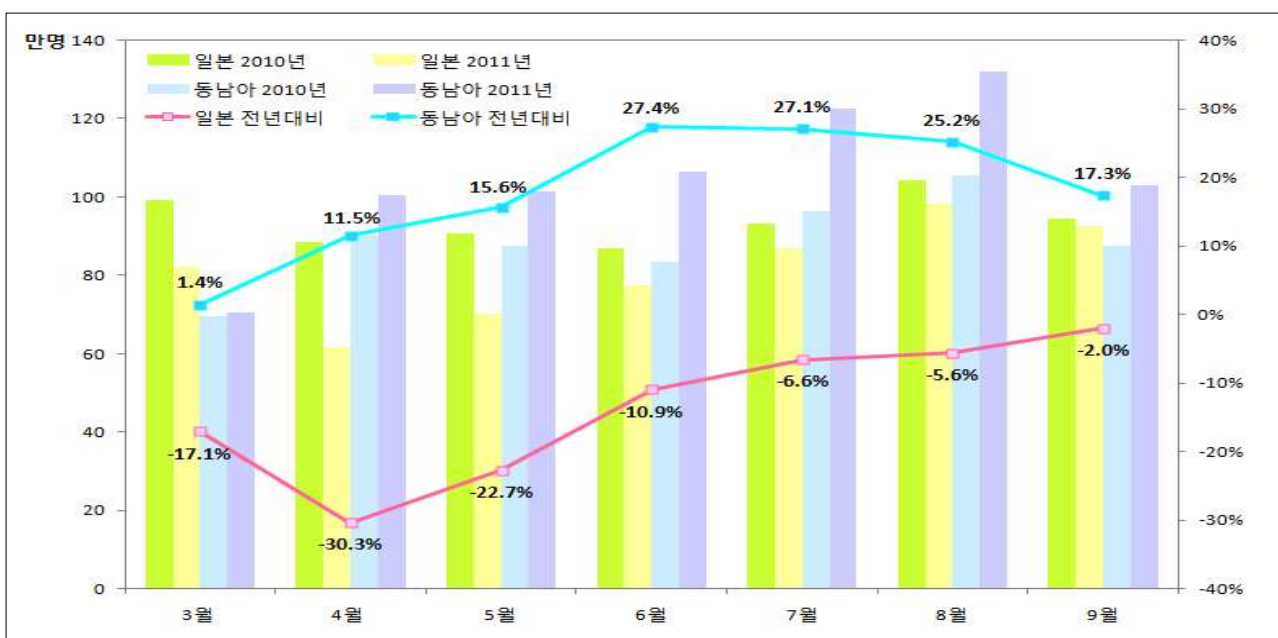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일본	중국	동남아	미주	유럽	대양주	기타
'10년 9월	943,623	785,456	876,876	316,010	231,364	95,840	52,265
'11년 9월	924,925	854,645	1,028,928	315,714	258,806	114,355	58,870
전년대비	△2.0%	8.8%	17.3%	△0.1%	11.9%	19.3%	12.6%

구체적으로 일본노선의 수요 변화를 살펴보면,
 $\Delta 17.1\%$ (3월) $\rightarrow \Delta 30.3\%$ (4월) $\rightarrow \Delta 22.7\%$ (5월) $\rightarrow \Delta 10.9\%$ (6월) $\rightarrow \Delta 6.6\%$ (7월) \rightarrow
 $\Delta 5.6\%$ (8월) $\rightarrow \Delta 2.0\%$ (9월)로 5월 골든위크를 기점으로 회복세를 보여 온 일본노선의 수요는 9월 실버위크와 엔화강세 등의 영향으로 한국행 여행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진발생 이전의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전체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4월에 20.0%로 전년대비 8.2%p 감소하였으나 9월에는 26.0%로 전년대비 2.6%p 감소하며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남아지역이 일본지역의 감소분을 충당하며 성장세를 이끌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연휴기간을 이용한 단거리 여행수요 증가, 저비용항공사의 운항증대 등으로 동남아와 대양주노선이 전년대비 17%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유럽노선은 재정위기로 인한 불안증대에도 불구하고 여객수요가 전년대비 11.9% 증가하며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일본과 동남아노선 비교 그래프

2011년 9월 국적사의 비율은 전 지역 평균 66.6%로 전년대비 0.7%p 증가하였고,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는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하여 4.6%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LCC 분담률 : 0.1%('08.9) → 0.6%('09.9) → 2.5%('10.9) → 4.6%('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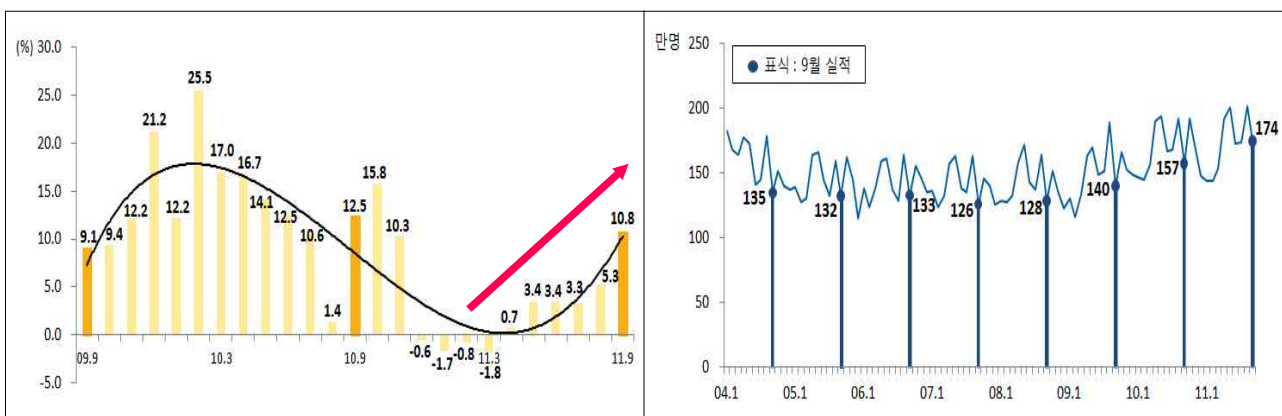
9월 인천공항의 환승여객은 공급좌석 확대에 따른 환승여객 수요 흡수 등으로 전년대비 9.7% 증가한 48만 명, 환승률은 16.9%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승여객 : 49만 명('09.9) → 44만 명('10.9) → 48만 명('11.9)

* 환 승 률 : 22.0%('09.9) → 16.1%('10.9) → 16.9%('11.9)

국내여객

9월 국내여객은 추석연휴 여행 및 귀성여객 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10.8% 증가한 1,740,432명을 달성하였다. 이는 지난 5월부터 성장세 둔화현상을 보이던 국내여객이 전월에 이어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추석 귀성여객,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로 인한 운항 증편, 상대적으로 짧은 연휴기간을 이용한 국내여행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림 3> 국내선 여객 전년 대비 증감률 및 실적추이 그래프

<표 3> 제주노선 vs 내륙노선 비교

구 분	제주노선		내륙노선	
	여 객	탑승률	여 객	탑승률
'10년 9월	1,134,878	74.8%	436,534	66.3%
'11년 9월	1,328,990	75.7%	411,442	64.1%
전년대비	17.1%	0.8%p	△5.7%	△2.3%p

국내여객실적을 제주노선과 내륙노선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제주노선의 경우 9월 전년대비 17.1% 증가한 반면 내륙노선은 전년대비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내륙노선의 감소세가 둔화된 것으로 추석 귀성여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탑승률은 제주노선이 75.7%, 내륙노선이 64.1%로, 제주노선은 전년대비 0.8%포인트 상승한 반면 내륙노선은 2.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를 통해 공항별 운항 및 여객실적을 보면 추석연휴 귀성여객 증가로 인하여 울산·포항·사천공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항에서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김해공항은 운항이 전년대비 1.7%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수요는 전년대비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TX 2단계 개통이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던 울산·포항공항도 9월에는 전년대비 각각 37.9%, 13.9%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월에 비해 감소세가 약 10% 정도 상승된 것으로 추석 귀성여객수요로 인하여 감소세가 둔화된 것이었다.

제주공항의 경우 여객수요가 전년대비 16.6%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는데, 저비용항공사의 운항증대로 인하여 여행소비심리가 더욱 커짐으로써 수요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제주노선의 대형국적사의 운항 및 여객수요는 전년대비 각각 3.3%, 0.3% 감소한 반면 저비용항공사의 운항 및 여객은 전년대비 각각 28.1%, 41.3% 증가하면서 제주공항을 방문하는 2명 중 1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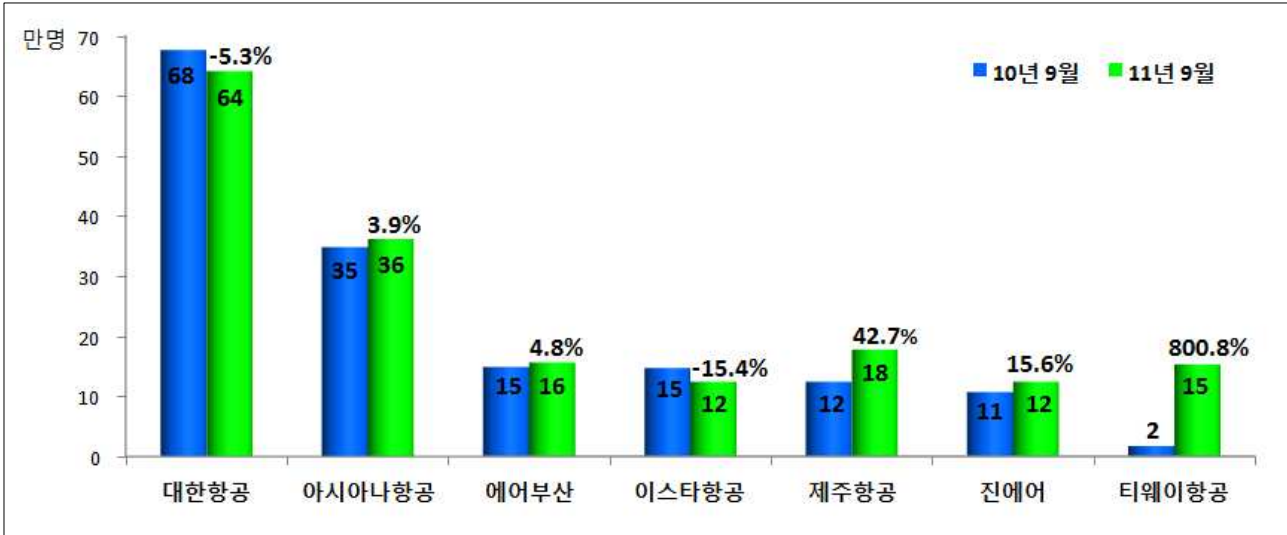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포-제주노선의 경우 저비용항공사의 분담률이 전년대비 11.2%포인트 증가하며 56.9%를 기록, 김해-제주노선은 4.0%포인트 증가한 60.0%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제주공항의 증가세는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로 인한 중국인 관광수요, 개천절 등을 이용한 내국인 가을철 여행수요 증가로 인하여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9월 저비용항공사의 국내여객실적은 736,729명, 분담률은 전년대비 7.6%포인트 상승한 42.3%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LCC 분담률 : 10.6%('08.9) → 30.5%('09.9) → 34.7%('10.9) → 42.3%('11.9)

<표 4> 공항별 국내선 운항 및 여객실적

구 분	운 항			여 객		
	'10년 9월	'11년 9월	전년대비	'10년 9월	'11년 9월	전년대비
제 주	3,991	4,566	14.4	572,408	667,338	16.6
김 포	4,248	4,594	8.1	562,966	615,146	9.3
김 해	1,585	1,558	-1.7	188,969	212,831	12.6
광 주	411	458	11.4	51,870	57,545	10.9
청 주	305	330	8.2	42,462	43,728	3.0
대 구	294	310	5.4	37,489	42,768	14.1
여 수	243	246	1.2	26,212	27,645	5.5
울 산	347	245	-29.4	40,819	25,362	-37.9
인 천	172	198	15.1	18,548	20,111	8.4
포 향	149	152	2.0	14,039	12,081	-13.9
군 산	59	60	1.7	6,198	6,434	3.8
사 천	69	76	10.1	6,165	5,792	-6.1
원 주	29	30	3.4	2,928	3,234	10.5
무 안	6	6	0.0	339	417	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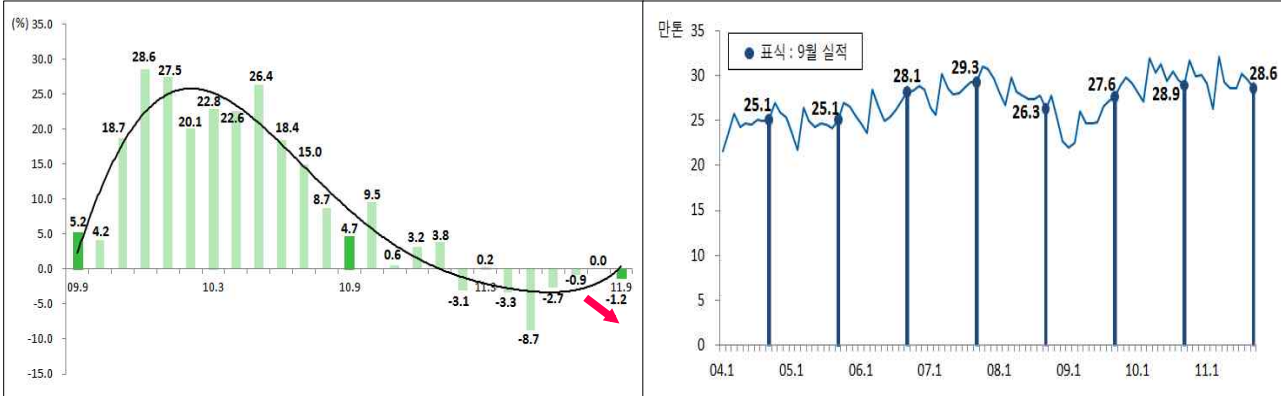
<그림 4> 국내선 항공사별 실적 비교 그래프

항공화물

9월 항공화물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 유럽의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전년대비 1.2% 감소하며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이는 IT제품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영향도 있지만, 9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패널 수출 감소세가 크게 둔화된 점은 항공 이외의 교통수단을 통한 수출입 증가영향을 받는 점을 시사해준다.

세부적으로 국제화물은 세계 경제침체에 따른 IT제품 구매위축 등으로 수요가 지속 감소함으로써 전년대비 2.0% 감소한 262,019톤을 기록하였고, 국내화물은 전년대비 8.2% 증가한 23,908톤을 달성하였다. 국제화물 운송량의 약 95%를 점유하는 인천공항은 9월 전년대비 2.0% 감소하며 전월에 이어 전체 항공화물실적의 감소세를 이끌었고, 국내화물의 경우¹⁾ 제주공항이 9월 전년대비 20.0% 증가, 김포공항이 9월 전년대비 0.5% 증가하며 증가세를 이끌어 간 것으로 나타났다.

1) 제주공항: 2011년 9월 기준 47.2% 점유, 김포공항: 2011년 9월 기준 27.1% 점유



<그림 5> 항공화물 전년대비 증감률 및 실적추이 그래프

<표 5>는 지역별 화물실적을 나타내어준 표로, 일본·미주지역을 중심으로 감소세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지난 3월 대지진 발생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주 지역은 경기불안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영향으로 전년대비 6.4% 감소하며 일본에 뒤이어 큰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중국·동남아·유럽은 성장세 둔화현상을 보였는데, 이는 최근 경제 불안이 부각되고, 외부 환경요인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항공화물의 특성이 리스크를 더욱 확대 시킴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IT제품의 소형화 추세로 인한 중량감소, 제조업 부진 등은 감소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지역별 화물 실적

(단위 : 톤)

구분	일 본	중 국	동남아	미 주	유 럽	대양주	기 타
'10년 9월	39,294	51,418	67,223	57,939	44,778	3,730	2,885
'11년 9월	35,578	51,569	66,967	54,205	45,365	4,625	3,710
전년대비	△9.5%	0.3%	△0.4%	△6.4%	1.3%	24.0%	28.6%

지식경제부 자료(금액기준)에 의하면 9월 IT제품 수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등 주력 제품의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며 전년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최대 IT수출국가인 중국과 중남미, 일본 등 개도국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최근 경기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미국, EU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IT 수출 최대국가인 중국(홍콩포함)은 사상 최대치인 66.7억 달러를 기록하며 對중국 IT수출 비중은 49.4%를 기록하였다.

* 전년대비 IT 수출 증가율 : ('10.9) 13.7% → ('11.9) 4.6%

* 전년대비 IT 수입 증가율 : ('10.9) 12.0% → ('11.9) 6.5%

* 對중국(홍콩 포함) IT수출 비중(%) : ('09) 41.5 → ('10) 45.0 → ('11.1) 44.3
('11.3) 46.7 → ('11.9) 49.4

9월 항공화물은 선진국의 경제침체 우려확산 여파로 감소세를 보이며 불안한 국면을 지속하였으나, 반도체·패널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 태블릿PC·스마트폰의 수출증가가 예상되면서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공항의 환적화물은 9월 93,908톤으로 전년대비 4.6% 감소, 환적률은 전년대비 0.2%포인트 상승한 45.9%를 기록하였다.

8월 공항 출입국동향

일본, 홍콩, 대만, 중국 등 외국인 입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2011년 8월 전체 외래국 입국은 전년대비 17.2% 증가, 내국인 출국은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공항을 이용한 외래객 입국은 전년대비 18.6% 증가한 82만 명, 내국인 출국은 2.5% 증가한 115만 명으로 내국인의 비율은 58.3% 수준이었다.²⁾

- * 전체 출입국자 : 222만명, 공항 이용 출입국: 198만명
- * 공항이용 외래객 입국('10.8월 69만명 → '11.8월 82만명)
- * 공항이용 내국인 출국('10.8월 112만명 → '11.8월 115만명)

전체 외래객 입국 중 공항이용 외래객입국은 84.3%, 전체 내국인출국 중 공항이용 내국인 출국은 92.3%에 해당한다. 외래객 입국은 인천, 김포, 김해 순으로, 내국인 출국은 인천, 김해, 김포 순으로 나타났다.

공항별로 살펴보면 외래객입국의 경우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등 주요공항이 전년대비 모두 큰 폭의 플러스 성장을 나타내었고, 내국인 출국의 경우 일본지진의 영향을 받았던 김포공항의 실적도 회복되면서 주요공항이 플러스 성장을 나타내었다.

<표 6> 출입국 현황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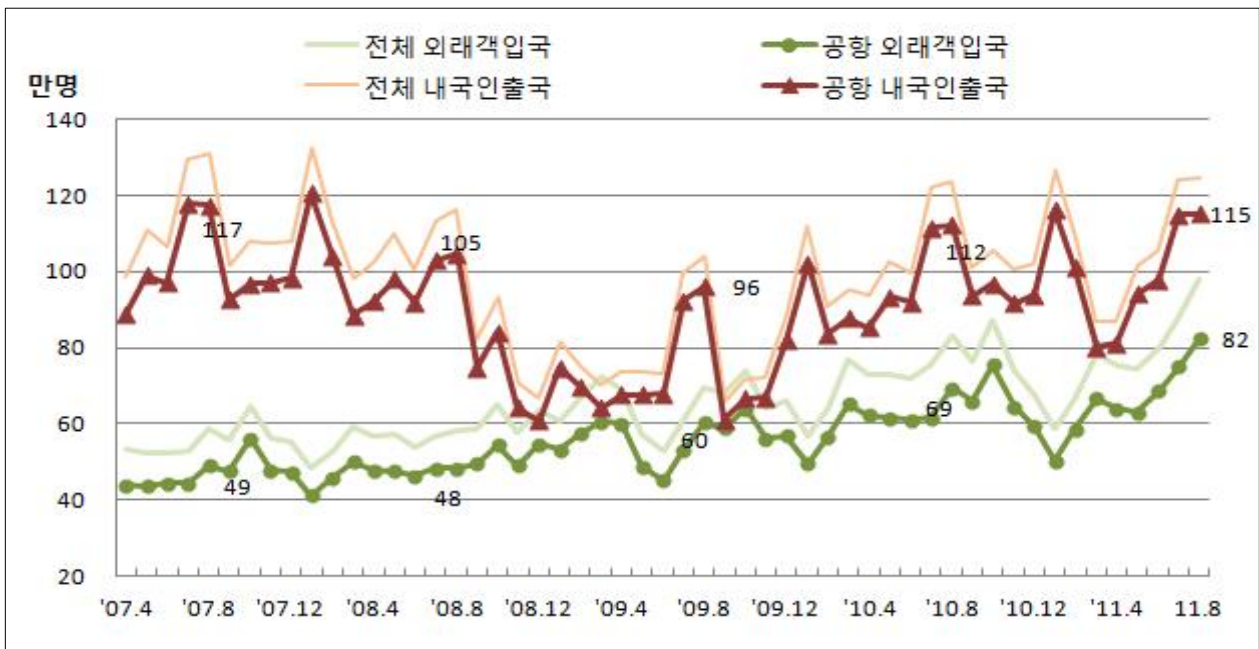
구 분	공항					비율	항구	비율	합계	
	인천	김해	김포	제주	기타					
외래객입국	580	62	114	61	7	824	84.3	153	15.7	977
내국인출국	932	120	73	6	21	1,151	92.3	96	7.7	1,247
계	1,512	182	187	67	28	1,976	88.8	249	11.2	2,225

2) 출입국통계는 항공통계와 집계기관이 다르고 승무원, 유아, 군공항, 환승 등에서 집계기준 차이 발생

<표 7> 외래객 입국, 내국인 출국현황

(단위 : 명, %)

구 분	외래객 입국				내국인 출국				내국인 비율 (%)
	'10. 8월 입국	'11. 8월 입국	증감 (%)	점유 (%)	'10. 8월 출국	'11. 8월 출국	증감 (%)	점유 (%)	
공 항	694,696	824,231	18.6	84.3	1,123,688	1,151,311	2.5	92.3	58.3
· 인천	512,020	580,054	13.3	59.4	924,453	931,904	0.8	74.7	61.6
· 김해	43,827	62,135	41.8	6.4	108,634	119,689	10.2	9.6	65.8
· 김포	73,947	114,090	54.3	11.7	65,454	72,857	11.3	5.8	39.0
· 제주	57,248	61,080	6.7	6.2	4,124	5,621	36.3	0.5	8.4
· 기타	7,654	6,872	-10.2	0.7	21,023	21,240	1.0	1.7	75.6
항구 등	138,997	153,065	10.1	15.7	112,054	95,911	-14.4	7.7	38.5
합 계	833,693	977,296	17.2	100	1,235,742	1,247,222	0.9	100	5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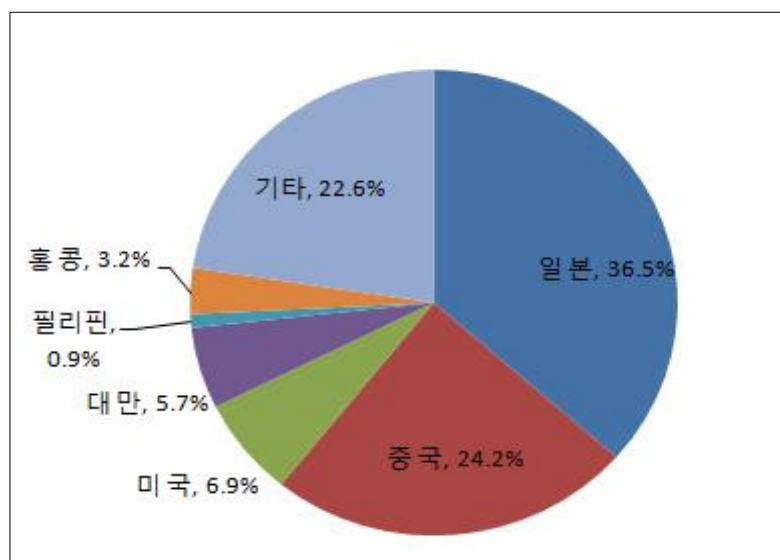
<그림 6> 외래객 입국, 내국인 출국 추이 그래프

마지막으로 8월 국적별 외래객 입국현황을 살펴보면 일본, 대만, 홍콩 국적의 외국인 입국이 전년동월대비 20%이상 크게 증가하였고, 중국도 14.5% 증가하였다. 2011년 8월 외래객 입국 중 각 국적의 비율은 일본이 36.5%, 중국이 24.2%, 미국이 6.9%에 해당한다.

<표 8> 국적별 외래객 입국현황

(단위 : 명)

구 분	전체 입국					공항 전체	성장률 (%)	국적별 점유(%)
		인천	김해	김포	제주			
일 본	325,927	168,018	27,038	91,586	14,294	301,188	23.6	36.5
중 국	276,299	134,654	12,270	12,964	35,963	199,625	14.5	24.2
미 국	57,817	50,518	2,636	1,873	163	56,542	4.5	6.9
대 만	47,235	37,502	3,348	189	4,849	46,655	23.9	5.7
필리핀	27,468	5,269	1,377	80	978	7,727	10.3	0.9
홍 콩	27,048	23,703	1,967	142	329	26,269	28.2	3.2
전체	977,296	580,054	62,135	114,090	61,080	824,231	18.6	100.0



<그림 7> 국적별 공항이용 외래객 비율 그래프

- ❖ **(통계 유의사항)** 2011년 3월 항공운송동향분석부터 국제여객 및 항공화물의 노선별 실적이 전체 공항 실적을 합산한 수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분석 자료에서는 인천공항의 노선별 실적 자료만 비교분석 하였으므로 과거 자료와 비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선별 지역 구분은 아래 자료를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지 역	포함 국가	비 고
일 본	일본	
미 주	미국, 브라질, 아이티, 칠레, 캐나다, 페루	괌, 호놀룰루, 사이판 제외
동남아	네팔, 대만, 말레이시아, 몰디브공화국, 몽고,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제르바이잔,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필리핀	홍콩, 마카오, 사이판 포함
중 국	중국	홍콩, 마카오 제외
유 럽	(유럽)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몰타공화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CIS) 그루지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대양주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 피지, 호주	괌, 호놀룰루 포함
기 타	(중동)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터키, 파키스탄 (아프리카) 콩고 (기타) 국제선 국내공항 경유 노선	